

축산업계

소식

물가안정 위해 돼지고기·분유 긴급수입 수입자금으로 축산진흥기금 사용

정부는 지난 2일 긴급 물가관련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산물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돼지고기 2천t, 분유 8천~1만t, 참깨 9천3백t, 땅콩 1만3천t을 긴급 수입·방출키로 했다. 또 돼지고기와 분유는 긴급수입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추가수입을 하기로 했다.

물가관련장관들은 이같은 수입확대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산진흥기금과 농안기금을 최우선으로 사용키로 하고 농안기금에서 3백억원을 긴급 배정했으며, 축진기금에서 62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또 돼지고기, 분유 등 생산자단체에서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품목을 제때 수입하지 않을 때는 수입창구를 조달청으로 전환하여 정부가 직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수입확대 이행여부를 감독키로 했다. 또한 수입쇠고기 방출량을 하루 270t에서 450t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농축산물 수입업무를 조달청이 관장하게 될 경우 농축산물 수입정책이 대폭 바뀌게 되며 유통체계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또 조달청이 농축산물 수입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은 조달기금을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법을 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영향 농축산물 추천없이 수입 물가대책 차원으로 법개정 움직임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농축산물은 수입규제품목이라 하더라도 주무부처나 관련단체 등 수입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지 않고도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수출입 기별공고제도는 수입이 규제되는 농축산물을 불가피하게 수입하는 경우 농민의 피해 등을 감안, 반드시 농림수산부, 농·축협 등 수입추천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을 수입하려 할 경우 부처간 이견이나 관련농민단체, 농민의 반발로 수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방침대로 수출입 기별공고제도가 개정될 경우 수입규제 농축산물이 물가대책차원에서 자유롭게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업구조조정기금 신설 배합사료, 축산기자재 부가세를 재원으로

민자당은 농수산물수입관세와 배합사료, 축산기자재의 부가세를 농어촌발전기금에 출연하여 농수산업 구조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하였다.

연간 4천5백억원에 달하는 농수산물수입관세와 배합사료, 축산기자재 부가세를 재원으로한 별도의 농수산업구조조정 기금을 신설하는 대신 이를 기존 농

어촌발전기금에 출연하되 농발기금내 농수산업구조 개선계정을 마련하여 별도로 관리·운영키로 했다.

부산물비료 제조기준 마련 흙·수분·중금속 함유량 검사

농림수산부는 최근 유기질비료 사용 농가가 증가 하면서 불량유기질비료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산물 비료 제조기준을 마련하였다.

부산물 제조기준은 퇴비, 구비, 재(초목회), 부숙겨, 녹비, 분뇨찌꺼기, 부엽토, 건계분, 가축폐기물(도축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 부숙왕겨 및 톱밥 등 10개 부산물 원료로 제조한 유기질 비료의 흙, 수분, 중금속 함유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기질비료를 제조할 때 염산불용해물이 30%이하여야 하고, 수분함량도 30%이하여야 한다. 또 중금속 함유는 비소 50PPM 이하, 카드뮴 5PPM 이하, 수은 2PPM 이하, 납 5PPM 이하로 제조토록 했다.

개정된 비료관리법은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서울인티 창립총회 생산자 중심 육계계열화업체



수원을 중심으로 한 육계계열화 회사인 (주)서울인티(대표이사 강석부)의 창립총회가 지난 2월 22일 수원 현대부페식당에서 주주 및 육계관련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육계산업의 국제화시대를 맞아 양질의 계산물을 생산공급함은 물론 생산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 근대화를 도모하여 육계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육계인에 의한 육계인의 회사를 설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주)서울인티는 순수한 생산자를 중심으로 계열주체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생산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성, 계열주체와 참여농가와와의 유기적인 협조속에 참여농가가 직접 위탁계약 생산하여 유통 및 가공업체에 계약 공급할 예정이다. 발생하는 수익금은 생산자 주주에게 균등하게 환원하게 된다.

사업규모에 있어 참여농가는 주주가 40호, 계약농가 20호로 총 60호이며 사육규모는 3만수로 1회전시 총사육규모는 180만수, 연간 계약생산량은 360만수이다.

참여농가는 매월 1만수 입추에 1만수 출하의무를 갖게 되며 초생추, 사료,약품, 연료 등 생산원자재를 회사가 일괄구매공급하여 계약생산하고 위탁생산 계약서에 의한 일정한 사육비를 지급게 된다.

(주)서울인티가 생산한 육계는 공급계약에 의해 가공업체 내지 대량 소비처에 전량 판매할 예정이다.

앞으로 (주)서울인티는 사육농가 시설개선 자원조달 및 도계장 건립, 자체 브랜드개발, 수출입업무 추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민자당 농어촌발전기획단 출범 농어촌현안 해결위한 실무작업

민자당 농어촌발전기획단은 당면 농어촌현안 해결을 위해 9개 기본과제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농어촌발전기획실무단은 지난 2월 12일 발족과 동시에 선정한 정책과제를 일부 보완하여 4월말까지 과제별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분석, 장기·단기정책 과제로 구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당

주도의 중점지도사업 및 제도개선안을 제시키로 했다.

9개 정책과제는 ·농정의 기본논리와 재정립 방안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 방안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지관련제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업 혁신을 위한 정예인원 확보방안 ·농업과학기술진흥 방안 ·농어촌활력증대를 위한 보완대책 ·농촌에 대한 재원투융자 개선방안 ·농어촌관련조직과 기구 정비방안 등이다.

마니육종 종계경영자세미나 개최 쉐라톤워커히호텔에서



마니육종은 지난 2월 23, 24일 쉐라톤워커히호텔에서 제14회 종계경영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종계경영자 세미나에는 2백여명의 종계경영자,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종계업계에 대두되고 있는 종계의 생산성 저하, 수정율·부화율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한국양계연구소 김영환 소장이 “최근 연구된 종계사양기법 및 부화관리 기술요점”, 농림수산부 이인형 과장이 “UR 협상 전망과 국내 축산정책 방향”, 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 소장이 “육용종계 생산성 저하 요인 및 예방대책”, 이재근 박사가 “인공 수정율 저하요인 분석”, 송봉축산연구소 오경록 전무가 “90년도 질병발생동향”, 영진부

화장 김태환 부장이 “마니커종계 사양 성공사례” 내덜란드 더글러스 윌스씨가 “부화시설 및 설비의 현대화”, 마니육종 이명범 이사가 “91년도 육계부화경기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산 대두박 kg 당 2백원에 인수키로 한국사료협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사료협회는 지난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원사들이 국내산 대두박 45만 t을 kg 당 2백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금년부터 수입자유화된 외국산 대두박에 대해 수입관세 상향조정을 주장하고 있는 동방유량, 제일제당, 삼양유지 등 대두3사와의 마찰을 줄이고, 사료산업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일정량의 국산 대두박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으로 대두3사와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사들의 반발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회원사가 인수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45만 t 전량 인수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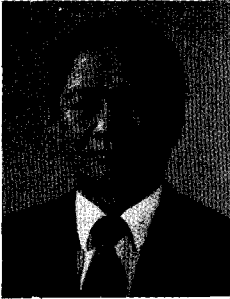
축협중앙회 정기총회 개최 6개항 대정부 건의문 채택

축협중앙회는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6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축협조합장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농촌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을 전환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UR 협상에서 축산물이 가지고 있는 비교역적 기능을 증시하여 국내 축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최대한 유예 및 이행기간 확보 ▲축산물의 생산기반과 유통개선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축산물 수입창구의 생산자 단체 관장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의 축산부문 투자 ▲집유업부의 축협일원화와 검사 공영화를 위한 낙농진흥법의 조속한 개정 ▲농축산물 가공업무 인·허가권 농림수산부 환원 등 6개항

을 건의했다.

신임 축산국장에 김정룡씨



◀ 김정룡 축산국장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에 김정룡 전농업협력통상관이 발령되었다.

신임 김정룡 국장은 지난 70년 행정고시 합격으로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을 거쳐, 79년 농업개발국 농업기계과장, 80년 축산국 사료과장, 83년 농업정책국 국제협력과장, 양정국 양정과장, 86년 양정국장, 주미대사관 농무관, 90년 농업협력통상관 등을 역임했다.

종축개량협회장에 설동섭 박사 선출



◀ 설동섭 회장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설동섭 축산시험장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설동섭 회장은 서울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농학박사를 취득했다. 주요경력은 서울대학 농대 부교수, 76년 농촌진흥청시험 국제2연구조정관, 83년 가축위생연구소장직을 역임했다.

분유수입 결사반대, 원유 5%증산기로 낙농육우협회 정기총회에서 결의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윤우)는 지난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분유수입을 결사반대하고 원유를 5%씩 증산기로 했다.

최근 정부의 분유수입 방침에 대해 낙농가와 낙농업 말살정책이라고 간주하고 분유수입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기로 했다. 또 정부의 분유수입 명분을 없애기 위해 낙농가 스스로 원유를 5%씩 증산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분유수입 즉각철폐·UR 농산물협상 거부·낙농진흥법 개정안 국회 상정·최고기 수입 차액 국내 낙농육우산업 기반조성에 충당 등 7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산란용 중병아리 유통 사전예방 지시 농림수산부 일선 시도에

농림수산부는 불량 산란용 중병아리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일선 시도에 지시하였다.

산란용 중병아리 사육업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중병아리 1만수 이상 사육업자는 축산법에 의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규모 이하의 사육농가에서는 품종 및 사육일령을 속여 팔거나, 육계사료를 급여하여 체중을 늘려 파는 사례 및 방역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팔아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각 시도에서는 중병아리 사육농가를 철저히 조사하여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조속히 등록하도록 지도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산란계 사육농가는 중병아리 구입시 중병아리 사육업을 등록한 농장에서만 구입하여 활용하도록 하여 불량 중병아리 유통을 사전에 근절될수 있도록 감독하도록 지시했다.